

5월 도내 건설수주액 4768억원 급감

동북통계청 발표... 지역업체 “보호책 필요” 호소

평창 동계올림픽 등 건설경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건설수주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강원지역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수주액은 157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4768억원) 줄었다.

이는 전국 수주액이 12조6077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대비 84.5%(6조8344억원) 늘어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올해 강원지역 건설 수주액은 1월 1213억원 (698.0% ↑), 2월 1989억원 (19.3% ↓), 3월 4606억원 (229.7% ↑), 4월 3972억원 (229.7% ↑)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여왔다.

건설업계는 건설수주량 급감 원인이

무늬만 지역업체인 외지업체 난립과 공동도급 수주율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가 발표한 올해 강원지역 건설사업 발주 계획은 3436건, 4조395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막이 되어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등 건설수주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도내 건설 장비·자재 우선 사용 등의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건설수주 17개월만에 최대치

5월 12조60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 늘어
건축·민간 증가세 견인... 기성은 3개월째 감소

지난 5월 건설수주가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축부문 수주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데다 토목부문 수주도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수주(경상)는 12조6080억원으로 전년 동월(6조8340억원)보다 84.5% 급증했다.

건설수주는 올 1월 전년 동월 대비 30.5% 증가한 이후 2월 들어 3.3% 감소세로 돌아섰다.

3월에는 무려 150.0% 급증하면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4월(20.6%) 들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월에는 전년 동월에 비해 100% 가까이 증가하며 지난 2013년 12월(12조6980억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이,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분이 건설수주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5월 건축부문 수주는 10조9490억원으로 전년 동월(5조5360억원) 대비 97.8% 늘어났고, 민간부분 수주도 10조860억원으로 전년 동월(4조7670억원)보다 111.6% 급증했다.

전월(-7.1%) 감소세를 기록했던 토목부

문(1조6590억원·27.8%) 수주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도 건설수주 증가에 힘을 보탤 것이다.

공공부문(2조4190억원·20.9%) 수주도 전월(86.3%)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전년 동월(2조원)보다는 다소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타 건축, 토지조성 등에서 감소했지만 신규주택, 사무실·점포, 철도·궤도 등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수주가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은 3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5월 건설기성(불변)은 7조950억원으로 전년 동월(7조4630억원) 대비 4.9%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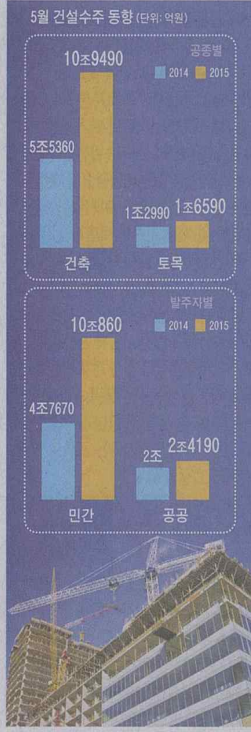
전월(-8.4%)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3월(-1.8%)부터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축부문(4조6850억원)과 토목부문(2조4100억원)이 전년 동월(4조8240억원·2조6390억원) 대비 각각 2.9%, 8.7% 감소하며 동반 부진했다.

한편 지난 5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 산업생산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박경남기자 knp@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4개공구 시공사 선정 착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수촌으로 쓰일 아파트 건설공사 4개 공구가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1일 한국도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강릉유천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472억원·이하 추정가격)와 강릉유천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1278억원), 강릉유천 B-1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422억원)와 강릉유천 B-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1201억원), 구리갈매 B3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534억원)에 대한 가격개찰에 이어 1단계 입찰금액 적정성(이하 저가) 심사에 착수했다.

LH는 다음주 1단계 저가 심사를 완료하고 2단계 저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 강릉 유천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4개 공구는 오는 2018년 2월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수촌으로 활용된 뒤 유지보수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채희찬기자 chc@

아하! 그렇구나

견적서, 이행각서 등의 교부로 하도급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

1. 사건개요

원수급인 원고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1차로 소의 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강교공사와 기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이후 피고회사에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 공사도면과 내역서 등의 견적자료를 교부하자 피고회사는 견적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당 130만원에 맞춰 하루 만에 졸속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이후 약 11개월간 협상을 거쳐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거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날인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에 이할 경우 경제성,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었으나, 피고회사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을 교부한 경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하도급계약 성립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사안의 검토

이 사건 건설하도급공사는 공사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다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공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한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당사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통상 주문자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으로써 계약체결의 준비·교섭행위 즉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이행각서는 그 문면에 의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경우 최초 견적서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하도급보증서 또한 앞으로 하도급계약이 성립되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청약 유인의 차원에서 교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견적서·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06.15. 선고 99다40418 판결).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판례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단순히 계약서류가 상대방에게 교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로서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견적서나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연히 하도급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
(건설 법률상담 자문위원 법무법인 동인)



건설업 경영상태 좀 나아졌지만...

건협, 지난해 재무제표 분석

**실적 개선, 이익잉여금 축적
현금 흐름·부채비율 개선에도
수익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매출액 증가율도 1.7% 그쳐**

지난해 건설업계의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부채비율과 수익성은 소폭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30일 전국 종합건설업체 9977개사의 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해 공공공사 입찰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평균비율'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은 2013년 147.88%에서 143.68%로 개선됐다. 주택 시장이 일부 회복하면서 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축적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채와 차입금이 줄면서 유동비율은 같은 기간 138.32%에서 141.17%로, 차입금 의존도는 25.56%에서 24.42%로 나아졌다.

특히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0.14%에서 3.02%로 크게 개선됐다. 이는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영업

2014년도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분	단위	2014년도	2013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43.68	147.88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41.17	138.32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24.42	25.56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배	1.83	1.43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매출액)	%	2.20	1.85
매출액순이익률 (세전순이익/총매출액)	%	0.73	-0.71
총자산순이익률 (세전순이익/총자산)	%	0.64	-0.62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3.02	0.14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회	0.88	0.89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비/건설부문총매출액)	%	4.93	5.04

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13년보다는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85%에서 2.20%로 높아졌다. 매출액순이익률은 -0.71%에서 0.73%로, 총자산순이익률 역시 -0.62%에서 0.64%로 손실에서 벗어났다.

건협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작년부터 주택 시장이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며 미착공 사업장의 착공과 미분양 감소로 매출이 늘고 수익성과 안정성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매출액 증가율이 7.5%에서 1.7%로 둔화되고 기술개발 투자비가 감소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건설업 평균비율과 경영상태는 향후 1년간 공공공사의 입찰시 업체별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며 적용일자는 발주기관별로 정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건설협회를 통해 증명이 발급된다. 종합건설업 2014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http://www.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석기자 jskim@